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성공한 후의 지도자

(느헤미야 6:15~7:73)

이종윤 원로목사

느헤미야는 오직 예루살렘 성을 쌓으려는 일편단심을 가지고 수산 궁에서 예루살렘에 왔다. 많은 방해물이 그를 막았으나 마침내 그는 성 쌓는 일을 성사시켰다.

- ① 바벨론 아다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일 - 그것은 이미 왕이 거부했던 일을 뒤집는 일이므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 ②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외적, 내적 방해꾼들이 있었다.

그러나 52일 만에 모든 역사가 끝났다(15절). 수산 궁에서 예루살렘성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공사를 마칠 때까지는 9개월이 걸렸다.

도대체 무슨 용기와 인내심이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나? 그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는 그를 둘러싼 반대파들의 먹구름 대신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써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하던 성 쌓는 일이 이루어졌으니 뒤로 물러서서 공적 치하나 받고 있을 법하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공한 후 그가 보여준 위대함은 무엇인가?

1. 느헤미야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16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단 4:30)고 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한 말과 정반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심판을 받았다(단4:31 - 32).

느부갓네살은 그의 이성이 회복될 때까지 들의 짐승과 함께 거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은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2. 느헤미야는 성공한 후에도 그 성공 때문에 계속되는 문제를 보지 못한 자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성공하고 나면 마치 자기 에겐 실패도 미완성도 없다는 식의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느 6:17 - 19).

느헤미야는 계속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았다. 도비야는 반대파의 두목이었다. 이 책의 끝부분이 되는 13장에서 그는 여전히 문제아로 남아있다.

- ① 도비야는 느헤미야처럼 유대인이었다.
- ② 예루살렘 부유층들과 상거래가 있었다.
- ③ 혼인관계를 통해 예루살렘 귀인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도비야에 대해 느헤미야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3. 느헤미야는 직분자 임명을 바로 했다

3장에서 성벽 쌓는 자들의 명단이 있듯이 7장에는 다른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에스라서의 것과 거의 비슷하다. 그것은 그 사역을 굳게 하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함이었다. 그는 성을 완성한 후 중요한 자리에 직분자를 임명했다.

7장 초두에는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의 임명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7:1).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니를 예루살렘의 시민 지도자(시장)로 삼고,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지키는 새 군대 사령관(경찰청장)으로 삼아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리에서 뛰어난 자들이었다(7:2).

4. 그리고 그들에게 적당한 지침을 내려 주었다(7:3)

느헤미야는 백성을 계수했다(8절). 현실 파악을 분명히 한 것이다.

7장의 대부분은 에스라서에서 뽑아낸 것이다.

- 에스라의 질문은 종교적이었다 :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 중 누가 유대인인가?
- 느헤미야의 목적은 현실적이었다 : 누가 도시에서 거주할 것이며 도시를 활기치게 할 것인가? 그 대답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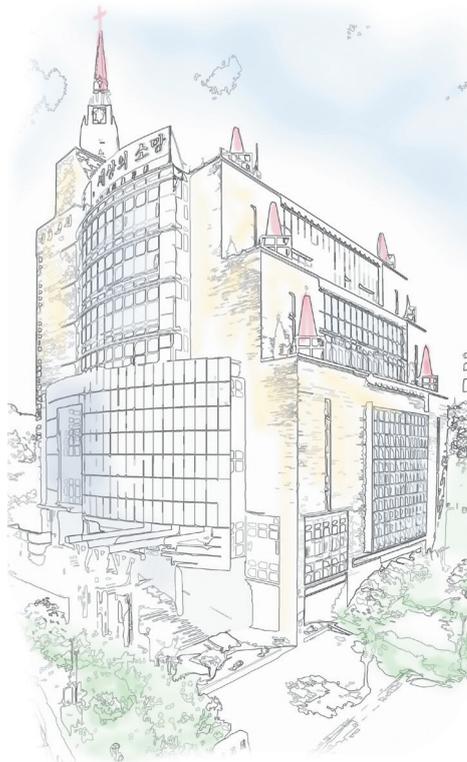
- ① 본래 지도자들 (6~7절) 스킨바벨(정치지도자) 즉 유다의 왕족과 여호수아(종교지도자)이다.
- ② 평범한 유대인들 (8~38절) 18명의 개인들은 "~자손", 20개의 마을들은 "~사람"(25절 이하)으로 묘사되었다.
- ③ 제사장들(39~ 42절) 아론의 후예들이다. 제사장들은 24가족으로 조직했다. 각 가족이 2-3주씩 책임을 지게 했다. 여기서는 포로 후 다윗의 방법을 따라 다시 조직한 것이다. 느헤미야는 4천명의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 ④ 레위 사람들(43절) 레위 후손을 말한다.
- ⑤ 노래하는 자들(44절) 레위 족속 중에서 와서 성전예배를 도왔다.
- ⑥ 문지기들(45절)
- ⑦ 성전의 종들(46 - 56절) 레위인들의 조수들이다.
- ⑧ 솔로몬의 종들의 후예들(57 - 60절)
- ⑨ 문제 있는 조상들(61 - 65절).

이전의 일을 위로하고 앞으로 올 일을 준비하기 위해(70 - 72절) 이 같은 이들이 성에 거주하게 되었다(73절). 이들은 총 42,360명(7:66)이었다.

유대인 귀인들 중 얼마는 도비야와 함께 거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 반대했던 이들이다.

이스라엘 가족들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500만 불(약70억원)에 상당하는 금·은을 성전에 바쳤다(70,71절).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 느헤미야는 새 지도자의 출현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그를 찾는 일, 임명하는 일까지 했다.
- 새 지도자가 필요로 하는 분명한 청사진을 그렸다.
- 하나님의 일은 물질 지원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도 알았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시 127:1)라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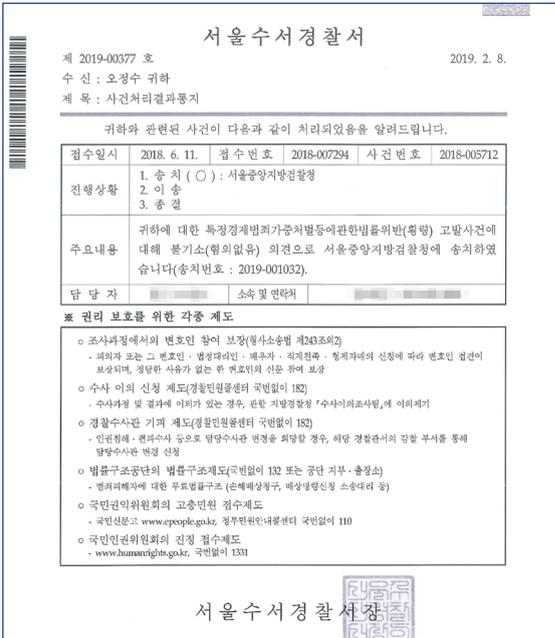
오정수 장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지난 2월 8일(금), 수서경찰서는 차명 계좌 수백 개를 운용하며 교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노철 목사 측의 고발에 의해 장장 8개월간 조사한 결과 오정수 장로등 피고발인 7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박노철 목사 측은 2018년 6월, 오정수 장로가 원로목사는 물론 역대 사무국장, 재정 담당 직원 등과 공모해 110억 원대의 횡령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박노철 목사 측은 오정수 장로가 차명 계좌 400여 개를 운영하며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를 하고, 교회 명의로 된 계좌 자금을 아들의 빌라 매입에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까지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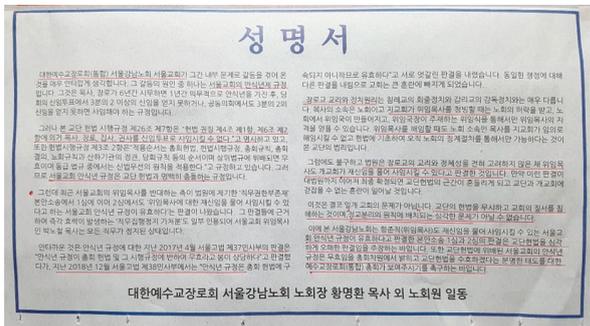
심지어 박노철 목사 측은 수사가 길어 지자 '서울교회 부패청산 평신도 혐의회'라는 당회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단체를 만들고 갑자기 횡령 액수까지 고발장보다 훨씬 더 부풀려 2018년 12월, '오정수 장로의 200억 재정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며 수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하였다.

오정수 장로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소식을 최초 보도한 서울경제신문 2월 12일자 기사도 '아직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남아있지만' 수서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해온 만큼, 오정수 장로가 법정에서 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히기까지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당회 서기인 임상헌 장로는 "진실은 승리하고 거짓은 밝히 드러난다는 진리를 거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믿음의 가족들께 피고발인 모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그동안 재정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맹신하며 주문처럼 외쳐 온 박노철 목사 추종 세력들이 받았을 심적 충격과 허탈감은 심히 막대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소식을 듣는 박노철 목사 지지측 교인들은 때를 놓치지 말고 진리편으로 돌아 오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강남노회는 무엇이 두려운가!



▶ 서울강남노회가 지난 2월 7일자 모 일간지에 실은 성명서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본안 소송 1, 2심 승소를 두고 강남노회는 회원 일부는 모든 회원들의 의견과는 상관 없이 회원 일동의 이름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언론에 성명서를 게재하였다. 목사·장로 안식년제가 두려움이 되는 이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 바른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교회와 성도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서로의 허물과 죄마저 덮어주고 자리보전만 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종이라 하시겠는가? 일찌기 종교개혁의 가치를 지향하고자 안식년

제를 제정했던 서울교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안식년제를 시행하였고, 박노철 목사 자신도 '안식년제는 서울교회의 아름다운 제도이다'라고 하였으나 갑자기 자신의 안식년을 앞두고 이 제도의 적법성을 논한다는 것은 박노철 목사가 그간 목회를 잘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며, 이 제도를 두고 교단법이니 총회법을 운운하며 안식년제 폐지를 외치는 목회자들도 자신들의 자리보전에 위협을 느끼는 자들임에 틀림없다. 강남노회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도를 논하지 말고 어떤 제도 앞에서도 떳떳한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송인수·박한옥 김재령 문동진·김은정 최봉애 윤종현1 전윤순 김현영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비전2020 운동 후원 농어촌100교회 후원 후원자 명단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명단 (2019. 02. 13) 이계홍(1/2) 정준혜(1/2) 송재현(선순례)(1)

비전2020 운동 후원자 명단 (2019. 02. 13) 이계홍(1) 정준혜(1) 송재현(선순례)(1)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명단 (2019. 02. 13) 이계홍(성순자)(1/2) 송재현(선순례)(1)

다음 주 계속

권사회 연합수련회 2월 20일(수) 오후 2시

2019년 권사회 연합수련회가 오는 2월 20일(수), 오후 2시 웨민홀에서 열린다. 살롬권사회와 권사회가 연합하여 갖는 이번 수련회는 이정환 목사님께서 강사로 서시며 경건회와 특강, 기도회로 이어지게 된다. 12시 30분부터 점심 식사가 제공되며 권사회원이 아닌 분도 참석을 환영한다.

살롬권사회와 권사회 회원들은 미리 일정을 조정하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수련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19 성경암송대회

범위: 마 5-7장(산상수훈) 예선: 9월 29일(주일) 본선: 10월 12일(토)

2019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29(주)
 - * 암송범위: 마 5-7장(산상수훈)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12(토) 오후 7시

박노철 목사 측의 진실 조작 (1)

- 반포동 교회 임대보증금은 정말 얼마인가? -

지난 몇 주 동안 박노철 목사 측이 서울교회 재정비리라며 공개 카톡방과 유인물을 무작위로 살포하였다. 이에 박노철 목사 측이 서울교회 재정비리 주장에 대해 감추고 왜곡한 진실과 부도덕적인 거짓 주장을 하나씩 밝히고자 한다.

(편집부)

최근 박노철 목사 측 김*은 권사가 공개적인 카톡방에 반포동 서울교회 임대보증금의 비리라며 한장의 사진을 올렸다. 계약서 상에는 임대보증금이 10억이었지만 연도 말 결산서 상에는 15억으로 차액 5억이 사라졌고 서류상 찍힌 중개인란에 필그림 출판사 명패로 원로 목사와 오정수 장로의 비리로 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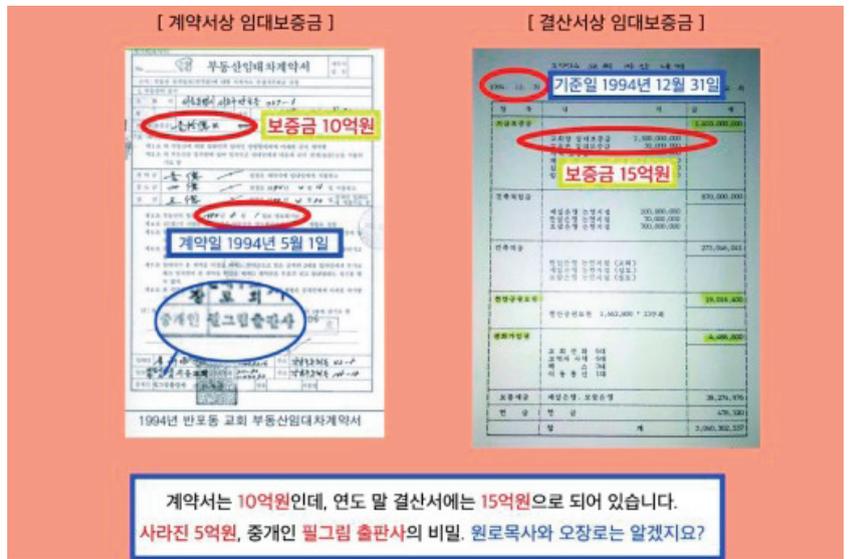
그러나 박노철 목사 측은 교묘한 방법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 보증금 10억이라는 저 노란 네모 안의 글씨로 원본에 있는 1, 2층이라는 문구를 교묘히 가리고 있다.

처음 반포동교회 계약 당시 건물 사정상 1, 2층만 먼저 계약했고 몇달 후 3, 4층까지 추가로 계약했기에 처음 10억이 연말에 15억이 된 것이다.

저 계약서는 1, 2층 계약서이고 연말결산서에 보증금 15억은 1, 2, 3, 4 전층 보증금이므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박노철 목사 측의 김*은 권사와 저 자료를 만든 자들은 딱 저자리에 보증금 10억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가린 것이다. 하필 저 자리를 가린 것이 우연일까? 고의였을까? 우연이라면 어쩌다 한 번 저렇게 했겠지만 고의적으로 의도한 것이라면 유언비어와 거짓 조작은 계속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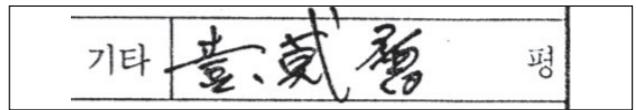
또한 필그림출판사는 교회 명패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필그림출판사」가 같이 표기 된 명패로 명패가 커서 그 자리에 찍힌 것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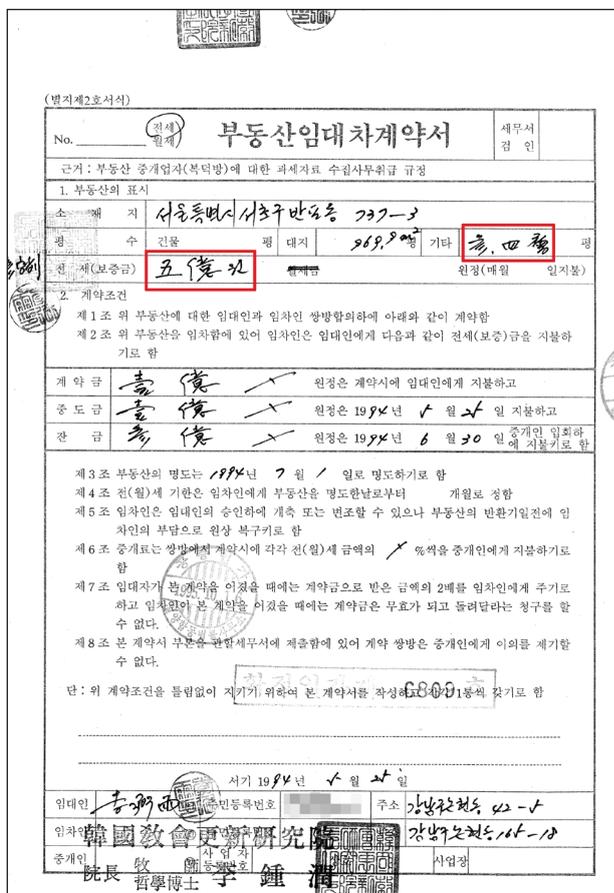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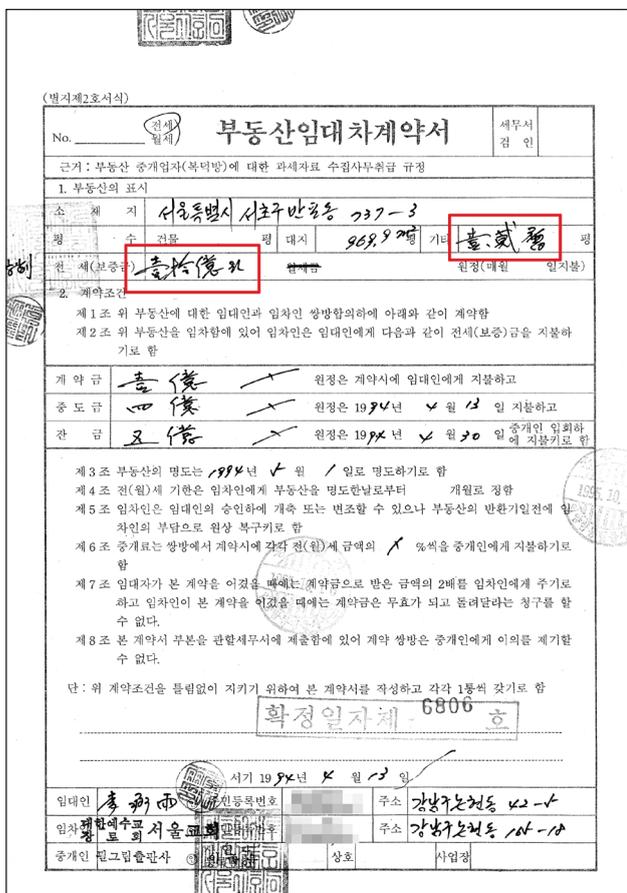
▶ 최근 박노철 목사 측 김*은 권사가 공개적인 카톡방에 올리고 유인물로 살포한 반포동 서울교회 임대보증금의 비리라며 올린 사진



▶ 보증금 10억이라는 노란박스는 원본에 있는 글을 교묘히 가리고 있다.



▶ 원본에는 보증금 10억이라는 저 노란색 박스 뒤에 '1, 2층' 한문이 써있다.



▶▶ (왼쪽) 반포동 서울교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박노철 목사 측에서는 가렸으나 명확하게 표기 된 1, 2층

▶ (오른쪽) 나중에 계약된 3, 4층 임대차계약서 : 3, 4층과 5억이 뚜렷히 명시되어 있다.

이로써 반포동 교회 임대보증금은 15억이다. 이렇게 찾기 쉬운 진실마저도 교묘하게 감추고 재정비리를 외치는 박노철 목사 측의 거짓주장에 더 이상 흔들리고 의심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란다.

망령된 행실에서 돌이키라!

지난 2월 11일, 그동안 박노철 목사 측에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였던 소위 200억 재정 비리 고소 건이 약 8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불기소(혐의없음)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았다. 물론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남아있지만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 사건이므로 이미 담당 검사의 사전 판단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이므로 검찰에서 그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나 이번 고소 건은 오정수 장로와 원로 목사님, 역대 사무국장과 재정 담당 직원들을 공모자로 고소하였던 참으로 어이 없는 사건이었다.

재정비리에 관한 고소는 검찰, 지법, 고법의 무혐의 처분이 3번 있었고, 이번이 4번째이다. 그간 아가페타운 부지 매입건, 아가페타운 리모델링건, 원로 목사 사택 구입건, 등 박노철 목사 측은 그야말로 털면 먼지라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각종 매체에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며 고소 고발을 남발하였지만 결과는 명명백백하였다. 결국 박노철 목사 측이 외치는 재정비리란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한 구실로 만들어낸 실체 없는 허상에 불과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건 교회의 회복이 아닌 돈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박노철 목사 측은 그간 허위 사실로 무고한 성도들을 호도, 세뇌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길로 인도한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주님은 한 영혼을 실족케 해도 연자땀들을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엄히 말씀하셨지만, 수 천 명의 성도들을 근 4년에 걸쳐 혼란 가운데 빠뜨리며 교회를 거짓 가운데로 밀어 넣고 갈갈이 찢은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 말해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 앞에 불복하며 용역을 앞세워

교회당만 점거하고 있으면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망상에 빠져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순한 목적을 위한 보루인가? 박노철 목사는 분명히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벌여온 망령된 행실의 상대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박노철 목사님과 그의 측근들은 오늘이라도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통회 자복하고 제 갈 길로 가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박목사와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거짓 선동에 속아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박노철 목사를 이상화하여 목숨 걸고 목사를 지키겠다는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미몽에서 깨어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오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서울교회 바로 세우기 협의회 일동

박노철 목사측이 재항고한 이종윤 원로목사 대리당회장 건 대법원에서 기각

지난 2월 8일(금) 박노철 목사 측이 재항고한 이종윤 원로 목사 대리당회장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기각하였다.

박노철 목사가 교회 통장과 비밀번호를 거짓 분실 신고로 교회 총유재산인 예금 전액을 자신만이 마음대로 입·출금 등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102기 총회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순례자 1302호 참조) 당회는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대표자 정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박노철 목사 측의 반대로 실제 변경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원로목사님을 상

사건일련번호	사건일련번호		
사건번호 : 대법원 2018오1962	이종윤		
기본내용			
사건번호	2018오1962	사건명	재정실태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피의자명	이종윤	재판부	제2부(파) (전화:02)3480-1355
결수일	2018.07.10	종국결과	2019.02.08 기각
형제번호	2018재정1564		

대로 적법한 근거 없이 대리당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서울교회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박노철 목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등정

- 금주의 식사 : 교회 제공
잡채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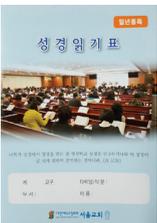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월 20일(수) 모이는 권사회 연합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회원들이 큰 은혜 받고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소서.
2. 우리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3.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시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지게 하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2월18일	월	민 5-6		삼상 12-17	
2월19일	화	민 7		삼상 18-23	
2월20일	수	민 8-10		삼상 24-31	
2월21일	목	민 11-13		삼하 1-6	
2월22일	금	민 14-15		삼하 7-13	
2월23일	토	민 16-19		삼하 14-19	
2월24일	주일	민 20-22		삼하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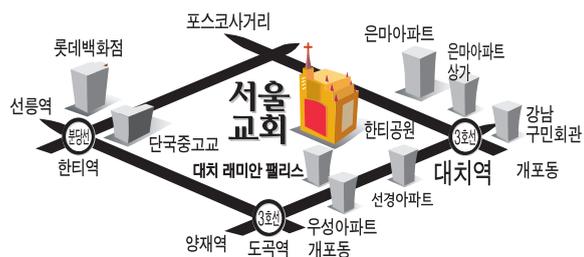


일년통독 성경읽기표가 웹민홍 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1독/2독 마치시는대로 교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표는 매주일 순례자에 기재됩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여 교회와 성도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